

CEO 동정

호남고속철도 및 전라선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일 호남고속철도 및 전라선 등 호남본부관내 건설현장을 방문, 각종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고품질의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하였다.

경부고속철도 6-4B공구 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9월 29일 경부고속철도 6-4B공구 식장터널 현장을 방문, 시공 상황을 둘러보고 고품질의 철도건설과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경영 위기극복 및 청렴실천 전진대회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9월 26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영 위기극복 및 청렴실천 전진대회'에서 "부패없는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퇴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하였다.

전라선[익산-여수]복선전철 개통식
2011. 10. 5(수)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 용산에서 여수까지 KTX로 3시간 21분, 1시간 54분 단축 -

공단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여수까지 180.3km의 전라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지난 5일 KTX 운영개시와 함께 개통식을 가졌다.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개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개통을 축하하였다.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8,128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2001년에 착공한 후, 12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전라선은 1930년대 처음 열차를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1988년 신리~순천구간 노반개량공사를 시작으로 2002년 순천~여수구간, 2007년 익산~신리구간을 착수하여 금년 익산에서 여수까지 180.3km 전 구간을 전철화 개통하게 되었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착공
- 1조 1,400여억 원 투입, 2018년 완공 -



공단은 지난 9월 28일 제천시 제천역 광장에서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7년까지 중앙선(청량리~경주) 총 362.9km 구간을 복선전철화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금번 서원주~남원주~봉양~제천 구간 44.1km에 총 1,4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54km인 노선이 41km로 단축되고, 운행속도도 시속 110km에서 시속 250km로 향상되어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운행시간이 현재 2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대로 단축된다. 이는 중부내륙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로용량이 하루 편도 52회에서 127회로 대폭 늘어남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예상되며,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되어 원활한 관람객 수송은 물론 제천시 주변 충주호 등 중부내륙지역의 관광수요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중국 중철제1설계원 협력의향서 체결
- 중국내 지하철사업 진출 기대 -



해외사업본부는 중국 중철제1설계원(동사장 왕정밍)의 방한기간 중인 지난 9월 29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중국내 지하철 및 역세권 종합개발 등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현재 중국내 주요간선 철도망 건설이 안정화 단계에 있어 철도시장의 방향이 도시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체결됨에 따라, 향후 도시철도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226개 도시에서, 2020년까지 5만km 건설목표(약 3조위엔, 약 500조원) 중국측은 금번 방한기간(9.26~9.30) 중 국내 지하철 뿐만 아니라, 광화문역, 왕십리역, 삼성역 등의 역세권 건축 및 신분당선 현장견학과 KTX 탑승을 통해 한국 철도기술을 직접 체험하였다. 한편, 중국지사는 "중철제1설계원으로부터 중국 랴오닝 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대한 참여 협력방안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체결로 더욱 활기차게 중국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사업본부 정은주 기자)

김광재 이사장, 신분당선 현장방문
- 개통 앞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O) 현장방문 -

김광재 이사장은 일요일인 지난 9월 25일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O) 현장을 방문하여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준인 열차(무인운전)의 시승을 마친 후 공사현장 및 종합관제실을 둘러보고 현장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여 간의 성공적인 공사수행을 치하하며, 네오트랜스(주) 사장 이하 임직원 모두가 주말에도 개통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단도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등 요금관련 시스템은 주무관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특히, 신분당선은 민간이 시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마무리 공사 및 시운전에 최선을 다하여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본부 정신택 기자)

